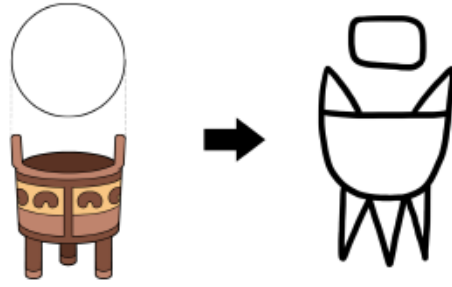


4(2)  
-  
151

회의문자①



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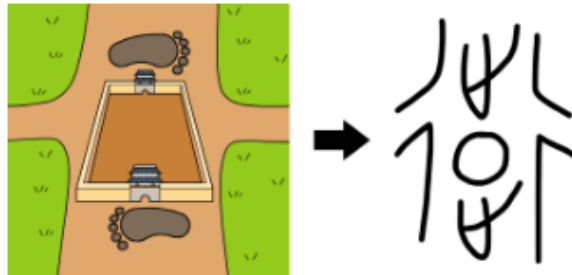
인원 원

員자는 '수효'나 '인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員자는 口(입 구)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員자에 쓰인 貝자는 鼎(솥 정)자가 잘못 옮겨진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員자를 보면 솥을 뜻하는 鼎자 위로 등그라미가 貝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등근 솥 위로 원을 그려 '등글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員자가 '등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수효'나 '인원'이란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口(예운담 위)자가 더해진 圓(등글 원)자가 '등글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52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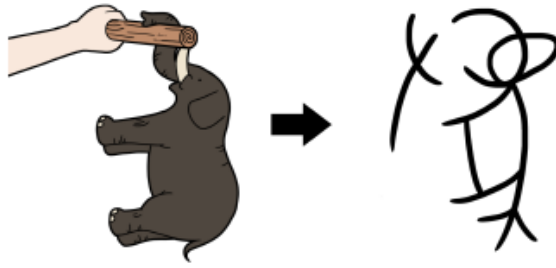
衛

지킬 위

衛자는 '지키다'나 '호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衛자는 行(다닐 행)자와 韋(가죽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韋자는 성(城) 주위를 호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성을 둘러 호위하는 모습을 그린 韋자에 사거리를 그린 行자가 결합한 衛자는 모든 방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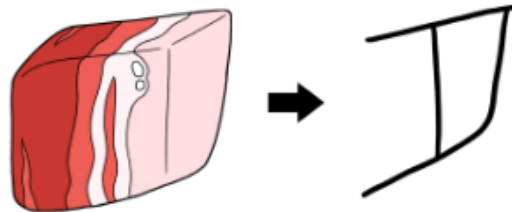
爲

하/할  
위(·)

爲자는 ‘~을 하다’나 ‘~을 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爲자는 원숭이가 발톱을 쳐들고 할  
퀴려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爲자를 보면 본래는 코끼리와 손이 함  
께 𠂔 그려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코끼리를 조련시킨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  
서 爲자의 본래 의미는 ‘길들이다’였다. 하지만 후에 코끼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시킨다는 의미  
가 확대되면서 ‘~을 하다’나 ‘~을 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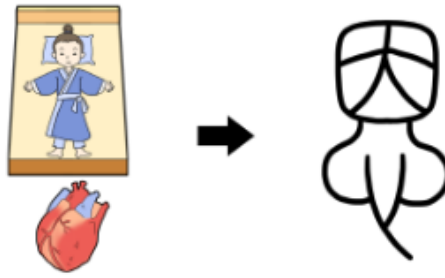
고기 육

肉자는 ‘고기’나 ‘살’, ‘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肉자는 고깃덩어리에 칼집을 낸 모양을  
그린 것으로 ‘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肉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만 고기를 뜻하고 다  
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肉자  
가 부수로 쓰일 때는 ‘달’을 뜻하는 月(달 월)자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본래 肉자의 부수자  
로는 月(고기 육)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편의상 月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을 뜻  
하는 月(달 월)자와 혼동이 생길 수 있지만 月(달 월)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期(기약할 기)자  
처럼 우측 변에 위치하고 月(육달 월)자일 경우에는 肝(간 간)자처럼 좌측이나 하단, 상단에  
위치하게 되니 구분할 수 있기는 하다. 이렇게 肉자가 月자로 쓰일 때는 ‘육달 월’이라고 읽는  
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55

회의문자①



恩

은혜 은

恩자는 '은혜'나 '온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恩자는 因(인할 인)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因자는 침대에 大(큰 대)로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로 인하여'나 '의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因자에 心자를 결합한 恩자는 '의지(因)가 되는 마음(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恩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나 '온정'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4(2)  
-  
156

회의문자①



陰

그늘 음

陰자는 '그늘'이나 '응달', '음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陰자는 阜(부: 언덕 부)자와 今(이제 금)자, 云(구름 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금→음'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큰 언덕과 구름은 햇빛을 차단해 그늘을 만든다. 그래서 陰자는 그늘을 만들어 내던 구름과 언덕을 응용해 '그늘'을 표현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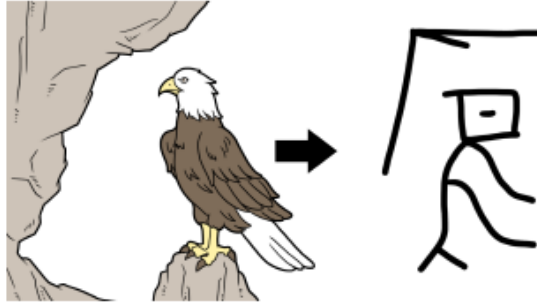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57

회의문자①



應

응할 응:

應자는 '응하다'나 '승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應자는 雁(매 응)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雁자는 매를 그린 것이다. '매사냥'이라는 것이 있다. 잘 훈련된 매를 날려 꿩이나 토끼 따위의 짐승을 잡는 사냥법을 말한다. 짐승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선사 시대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사냥법으로 알려져 있다. 매는 사냥을 끝내면 잡은 짐승을 가지고 주인에게 되돌아온다. 應자는 그것을 응용한 글자로 매가 내 요구에 응답하듯이 상대방이 나의 요구에 응해 준다는 뜻이다. 사실 이전에는 雁자가 '매'와 '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心자가 더해진 應자가 '응하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應

금문

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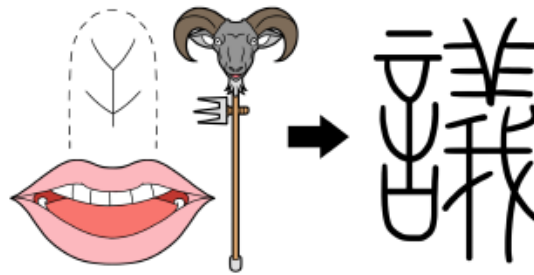
소전

應

해서

4(2)  
-  
158

회의문자①



議

의논할 의(:)

議자는 '의논하다'나 '토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議자는 言(말씀 언)자와 義(옳을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義자는 제사 때 사용하던 의장용 장식을 그린 것으로 양의 머리를 창에 매달아 놓은 모습이다. 고대에는 이것이 제사를 주관하던 족장의 권위를 상징했다. 족장은 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열었는데, 신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부족의 미래가 영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장용 장식을 그린 義자와 言자가 결합한 議자는 신에게 올바른 것을 묻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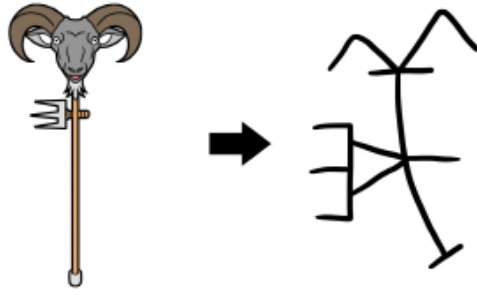
소전

議

해서

4(2)  
-  
159

회의문자①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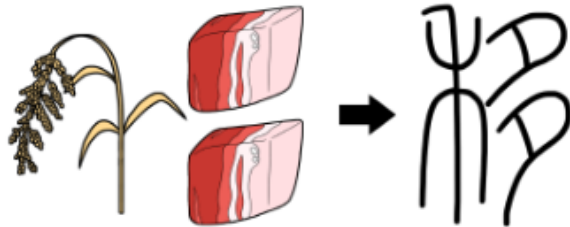
옳을 의:

義자는 '옳다'나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義자는 羊(양 양)자와 我(나 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我자는 삼지창을 𠂔 그린 것이다. 義자의 갑골문을 보면 창 위에 양 머리를 매달아 놓은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양 머리를 장식으로 한 의장용 창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창은 권위나 권력을 상징했다. 상서로움을 뜻하는 양 머리를 창에 꽂아 권위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義자는 종족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옳다'나 '의롭다', '바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60

형성문자①



移

옮길 이

移자는 '옮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移자는 禾(벼 화)자와 多(많을 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多자는 고기를 쌓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이'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移자는 본래 모를 옮겨 심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벼의 생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볍씨를 모판에 일정 기간 성장시킨 후에 논에 옮겨심기하는데, 이것을 '이앙법(移秧法)'이라고 한다. 그래서 移자는 '모판을 옮겨 모내기한다'라는 뜻을 가졌으나 지금은 단순히 '옮기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